

# 구원으로 인도하는 고통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의 배경과 정신-

## 이 동 의 신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2년 5월 13일 교황청 보건 사목 위원회 위원장 피오렌조 안젤리니(Fiorenzo Angelini)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제정 사실을 전하시면서 앞으로 매년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기념일인 2월 11일에 “세계 병자의 날”이 거행될 것이라고 밝히셨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의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92년 10월 21일에 발표된 제1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에서 세계 병자의 날을 제정하게 된 동기와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교 백성의 목자들과 교회 공동체 내의 여러 구성원들,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보건 사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이 세계 병자의 날이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봉사의 길을 새로운 헌신의 마음으로 추구해 나가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 8일에 발표된 제2차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에서는 인간 고통의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다루면서 모든 보건 의료 종사자들은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세번째 세계 병자의 날 담화문(1994년 11월 21일)에서 교황은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고통의 이유를 특별히 도덕적 정신적 가치의 위기로 규정하면서, 고통받

는 사회, 인간이 안고 있는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고통을 선용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바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평화의 행위이며 선교이기 때문이며, 힘없는 사람들, 병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용기 있는 증거는 평화에 대한 지대한 공헌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세계 병자의 날을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세계 병자의 날이 추구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 1.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의 배경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교회 창립 때부터 꾸준히 전통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보여온 고통의 세계와 병자들에 대한 봉사 정신이며(제1차 담화문), 따라서 이 날은 교황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모든 신자들에게는 “교회의 선익을 위한 기도와 나눔 그리고 고통을 봉헌하는 참된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는 몸이 성치 못한 형제들의 얼굴에서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을 알아 보도록 초대하는 시간”(세계 병자의 날 제정 서한, 1992년 5월 13일, 제3항)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오늘날 이 사회에 가장 긴박하게 요청되고

---

이 글은 1995년 11월 3일 개최된 본협회 제54차 세미나에서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신앙 ; 구세주이시며 해방자,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의 증거 생활 ; 각각의 고유한 관계들 안에서, 즉 각 개인들과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번영과 건강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소명을 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봉사일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듯이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구원 문제의 핵심을 고통의 세계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으며, 참된 의미에서의 구원이란 고통받고 있는 인간, 세계에 대한 참된 봉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음을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이라는 독특한 한 방법으로써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 2.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의 취지

요한 바오로 2세의 세 차례에 걸친 담화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세계 병자의 날 제정의 취지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 1) 고통의 현실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직시할 수 있기 위해서(1차)
- 2)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새롭고도 긴급한 조치를 강구해야할 의무를 일깨워주기 위해서(1차)
- 3) 세계 병자의 날을 거행함으로써 교회는 보건의 사업이 극히 빈약할 개발 도상국가들의 국민들에 대한 투신을 새롭게 증진시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더욱 인간적이고 영신적이며, 물질적인 자원을 제공하여 이 시대에 존재하는 불의를 제거할 수 있기 위해서(1차)
- 4)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목과 자선활동에 새로운 자극을 줌으로써 사회 안에서 그러한 활동이 더욱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3차)
- 5) 단순한 전신효과로 만족하는 기념행사가 아니라 의식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봉사

가 사람들간의 더욱 참다운 이해를 도모하게 하고, 그 결과 진정한 평화의 구출에 기여하는 가치있는 일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1차)

세계 병자의 날 제정 취지를 이상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때 우리는 위의 취지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해야할 요청을 받게 되며, 고통의 의미 이해와 함께 실천적으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3. 고통의 의미

### 1) 고통 그 자체는 피해야 할 악(惡)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고통을 “이 시대에 존재하는 불의”로 파악한다. 인류의 고통을 징벌과 악으로 이해해왔던 고통에 대한 전통적 해석과는 상이한 차원의 해석이다.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고통의 역사 안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 하느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왔고 그에 대한 대답은 한결 같이 인류의 고통은 죄악, 특히 원죄에 대한 징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시험이며, 정화에 이르기 위해 꼭 필요한 쓴 약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 함께 따라온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고통의 수용보다는 오히려 고통 당하고 있는 피조물로 하여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왔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하신 하느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긴박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 모두는 우선 이 고통이라는 걸림돌 앞에서 애써 외면하거나 구실을 대면서 피하려고 하는 자세부터 없애야 한다. 교황은 고통의 현실을 다 음과 같이 직시하고 있다 : “우리는 눈 앞에, 전쟁과 분쟁으로 갈갈이 찢겨, 쉽게 피할 수도 있었던 참화의 무게 아래 짓눌린 사람들과 여러 민족들의 비통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의 폭력으로 인해 그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온갖 곤경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특히 유령과 같은 몰골을 한 어린이들의 애원하는 얼굴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1차 담화문)

계속되는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죽어간 수천의 사람들, 죄인이나 죄없는 이를 한꺼번에 휩쓸어가는 무서운 홍수 등을 눈 앞에서 보면서, 어린 외아들이 골수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기막힌 표현을 늘어놓을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으로 넘치는가? 죄 없는 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권능을 쥐고 계시다면 그분은 왜 그 슬한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두시는가?

고통을 하느님의 별로서 해석하는 논리는 사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에 대항치 않고 그저 용서받기만을 기대하는 수동적,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만든다. 그런 상태에서는 피할 수 있는 고통과 피할 수 없는 고통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없다. 그러나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마땅히 퇴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감수해야만 하는, 극복되지 않은 고통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고통이 단순히 징벌이나 악과 같은 것이었다면 예수는 인간의 고통을 위해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악이라면 아무리 쓰더라도 당연히 삼켜야 하는 것처럼, 벌이라면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고통의 대부분은 인간 자신의 책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현대의 인류가 안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현대에 만연되어 있는 이기주의와 폭력, 삶의 전형인양 제시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실용주의, 인류를 불안케하는 도덕적 정신적 가치들의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1차 담화문, 3차 담화문). 민족과 민족이 반목하고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은 분명 하느님의 의도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인간 자신의 탓이다. 고독하고 무자비한 죽음이나 가족간의 불화, 자연의 파괴,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 하느님의 의도가 아니다. 하느님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다. 인간은 이러한 하느님의 의도를 왜곡했고,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내쳐버림으로써 고통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인간의 죄로 인해 바뀌어진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다. 인류가 하느님 가까이 있을 때에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여겨졌을 것이 하느님을 멀리 떠나서는 비구원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곧 죽음 역시 공포가 아니라 하느님의 품속에 안기는 평화롭고 걱정없는 일종의 안식과 같았을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벌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벌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지적 하듯이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은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3) 고통은 신비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이며 벌의 성격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구원에 이르는 고통, 11항 ; 2차 담화문)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정의로운 사람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욥은 하느님께 자신의 고통을 열거하면서 “왜?”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을 위로 하러 찾아온 세 친구는 욥의 몰골이 너무 기가막혀 이렛동안 아무런 위로의 말도 못하고 주야로 땅에 앉아 그를 바라다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욥기 2,13 참조). 이렛동안의 침묵을 깨고 친구들은 욥의 처참한 고통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에 대한 벌이라는 일반적인 논리로 욥을 설득하려고 애쓴다. 그렇지만 욥은 그 친구들의 논리에 자신이 당하는 이 처참한 고통이 하느님의 벌이라는 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에 하느님께서서는 욥의 편을 들면서, 욥의 고통을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친구들의 변론

을 질타한다. 이어서 하느님은 욥에게도 ‘하늘과 땅’, 즉 근본적인 창조에 대해 묻기 시작하지만 욥이 전혀 대답할 수 없는 물음이다. 하느님은 원론적인 질문들을 폭포처럼 쏟아부음으로써 가련한 욥을 질책하신다. 하느님의 이러한 질책은 욥이 하느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점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듯이 행동했던 점을 들어 질책하고, 우주만사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는 듯한 욥의 태도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다만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는 상쇄될 수 없는 당신의 뜻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고통에 관한 우리의 의문에 대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첫번째 대답이다.

#### 4) 구원에 이르는 고통

고통을 받게되는 데는 우리의 탓도 있다고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왜 암세포가 확산되고, 기형아가 출산되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에 미련이 남아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모른다”이다. 우리는 다만 이 고통과 왜라는 질문을 성 금요일의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고통을 부활의 희망 속에 조명해 보아야 하는 것뿐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을 향한 인사말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고통과 하나가 되셨으며,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고통을 구원에 이르는 고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한다(2차 담화문). 곧 교황은 고통의 최종적 의미를 구원적 가치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교황의 서한 『구원에 이르는 고통』 16항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의 구원하는 능력을 의식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고통을 향해 나아가셨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통 자체까지도 사랑의 표현이자 구속의 요구, 다시 말해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 된 것이다(2차 담화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인간에게 열어 보여 주셨으며, 그 분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고통이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의미를 띠고 풍부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미래의 영광의 표징이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기뻐서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1베드 4, 13).

지금까지 고통에 대해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자. 고통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고통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여겼지만 어쩌면 우리가 고통을 겪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고통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세상에는 극복될 수 있고 또 극복되어야만 하는 고통이 있는 반면에 극복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자. 인간의 이기심, 무관심, 비겁함과 악의로 인해 나타나는 고통들은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고통들에는 인내와 허용이 아니라 저항과 반대로 맞서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도 분명 있다. 피조성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인간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겪는 환멸, 체념, 희생, 실망, 이별 등이 다 이 해산의 고통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별은 아픔을 준다. 그러나 이별의 슬픔을 통해서만 인간은 성숙해질 수 있다. 은퇴한다는 것 역시 자신의 일터에서 작별을 고하는 것이고, 이 또한 아픔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노인의 아름다움은 젊은 시절의 아픈 이별이 전제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세상과의 하직이 다가온다. 그러나 죽을 역시 인간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 누가 이러한 이별의 아픔을 밀어내고 거부하려 한다면 그는 자신이 피조물임을 거부하는 것이고, 곧 인간이기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고통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늘 새로이 치솟게 되는 의심과 회의가 교차하는 투쟁이 계속 되기 때문이다. 눈물과 탄식, 비통을 지나 끝내는 미처 깨닫지 못하던 하느님의 사랑을 긍정하게 되는 곳,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이 움튼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병어리가 되어 경외감으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의 불구의 아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불치의 환자도,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엄숙한 과정을 통해 오히려 건강한 이들에게 위로로 주게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곧 구원에 이르는 고통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 4. 고통에 대한 교회의 관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 병자의 날 거행을 단순한 전시 효과로 만족하는 기념행사로서가 아니라, 이 세계 병자의 날 거행이 의식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봉사가 사람들 간의 더욱 참다운 이해를 도모하게 하고 그 결과 진정한 평화의 구축에 기여하는 가치있는 일임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1차 담화문).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치유하고 도와줄 직업적 소명이 있다. 또한 그러한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나아가 현대의 탁월한 과학-기술적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족함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흥미롭게 이끄는 반성이 있다. 곧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는 자신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복음화와, 주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허약하고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라는 소명을 완수하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분야에서 교회가 느껴왔던 어려움들의 대부분의 주요 원인은 교회가 행하는 구원의 설교와 소명이 병든 사람들과 병든 인간 사회에 대한 동일하다고 보는 것과는 달리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구원 사명의 대상으로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교회가 그 본연의 구원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퇴치해야 할 마귀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치유되어야 하는 병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나서야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오늘날의 세계,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인간과 세상 안에서 교회가 항상 찾아나서야만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구원 사명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3개의 담화문을 통해 긴박하게 호소하는 다음의 몇 가지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과제가 될 것이다 ; 고통중에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새롭고도 긴급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 ;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봉사의 절대적인 요구 ; 보건사업이 극히 빈약한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교회가 투신하는 일 ; 인간의 심오한 가치에 대해 무한히 열린 마음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임신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 수호정신 ; 특별히 의료 종사자들이 지녀야 할 정신적 자세, 즉 병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신앙의 눈으로 그들 안에서 고통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정신적 재무장 ;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보건을 세계적 차원의 우선 문제로 수용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 ;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봉헌함으로써 평화의 일꾼이 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일, 곧 신뢰를 가지고 ‘고통받는 종’이신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일 등등.